



나도 촛불이 될 수 있어요

김두심_엘리사벳 · 가톨릭 디다케 교안 연구원

학습목표

자신을 희생해서 밝은 빛을 내는 촛불처럼 우리도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될 수 있다.

· 준비물 : 예화 자료, 초, 초 받침 접을 색지, 성냥 또는 라이터

시작 기도

사랑하는 하느님, 저희는 요즘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저희들이 착한 일을 많이 하면서 기다릴 수 있게 도와 주세요.

도입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선생님은 오늘 일찍 성당에 와서 성전에 들어갔었는데 수녀님께서 제대 초를 예쁘게 다듬고 계셨어요. 초를 켜고 미사를 드리고 나면 촛농이 흘러서 초의 윗부분이 반듯하지 않게 되거든요. 수녀님은 그렇게 반듯하지 않은 부분을 예쁘게 다듬고 계셨어요. 수녀님의 정성스런 손길 덕분에 촛불은 더욱 환하게 빛을 낼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미사 때 말고 초를 사용하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어린이들의 이야기를 듣는다.) 그래요, 우리 친구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촛불은 여러 가지 사용되는 곳이 많아요. 오늘은 이 촛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예수님 말씀에 귀 기울여 볼 거랍니다. 지금부터 선생님이 들려 주는 이야기를 잘 들어 보세요.

전개

예화 들려 주기

반디는 시골의 한 작은 성당 제대 위를 지키는 초랍니다. 초에 불을 붙였을 때 작고 환하게 빛을 낸다고 해서 반디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디는 작고 약한 자신의 빛이 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일 미사 때 성당 창문을 넘어 불어온 바람에 그날 불이 '헉' 꺼져 버려 여간 난감했던 게 아닙니다. 게다가 성당 천장 한가운데 달려 있는 커다란 전등인 한빛 아저씨가 내는 불빛에 비하면 자신의 빛은 너무 초라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한빛 아저씨! 저는 제 빛이 작고 보잘것없어서 너무 속상해요. 그런 작은 불빛을 내기 위해서 제 키가 늘 조금씩 줄어드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아저씨는 늘 똑같은 모습으로 큰 빛을 낼 수 있으니 참 좋으시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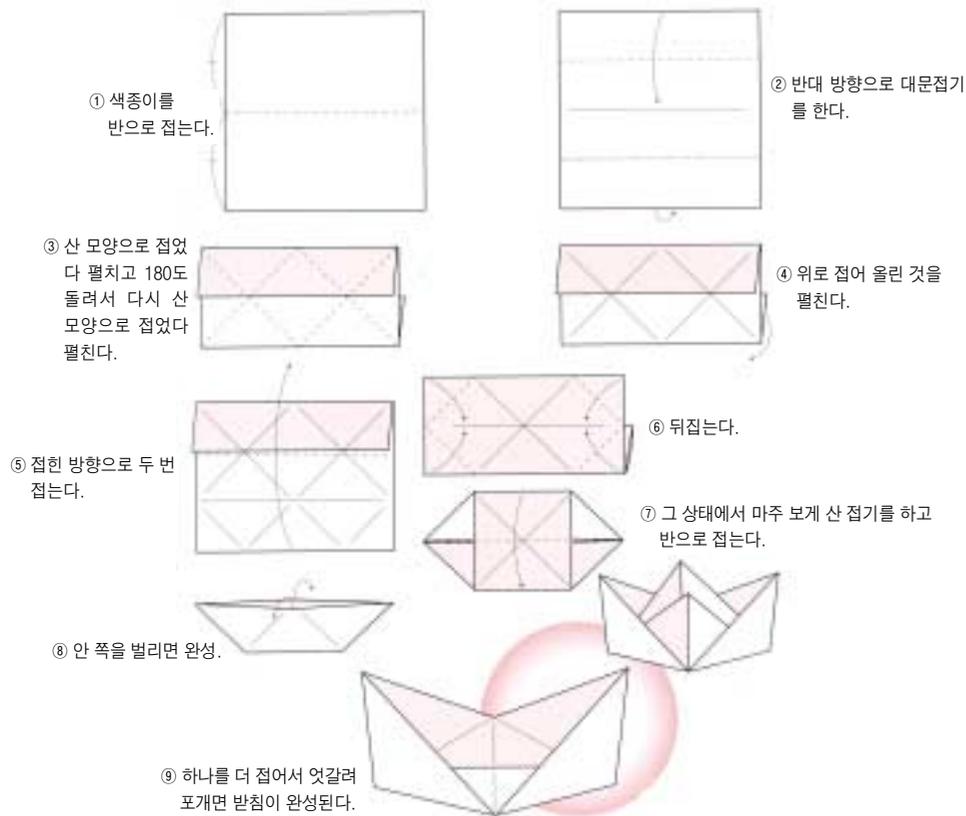
반디가 부러운 눈으로 한빛 아저씨를 바라보며 이야기했습니다. 한빛 아저씨는 그런 반디에게 허허허 웃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반디야, 네 불빛은 작은 것 같지만 아주 소중한 큰 힘을 갖고 있단다. 언젠가는 네가 그것을 알게 될 거란다.”

“소중하고 큰 힘이라고요? 에이~ 말도 안돼요. 이렇게 작는데…….”

반디는 한빛 아저씨가 그저 자신을 위로해 주려고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리

각자의 초에 불이 모두 켜졌어요. 이제 촛불이 타는 걸 보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기로 해요. (잠시 생각하는 시간을 준다.) 그럼 자기가 생각한 것 중에 한 가지씩만 이야기해 봐요. (어린이들 모두 한 가지씩 이야기할 수 있게 한다.) 선생님은 우리 친구들이 지금 생각한 것들을 잘 실천할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의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예쁘게 보실 거예요.

(촛불을 켜 놓은 조용한 상태로 마침 기도를 한다.)

마침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아픔을 견디며 저희를 위해 모든 것을 내놓으신 것처럼 저희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저희들을 도와 주세요.